

● consultation

Q 의과대학 학생인데 실습 중의 사고가 걱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는 성격이라 다음 학기부터 병원에서 실습을 돌게 되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만약 제가 HIV감염인에게서 주사기로 채혈을 하다가 주사기 바늘에 찔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post-exposure prophylaxis로서 항레트로 바이러스 제제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면 100% HIV감염이 안 될 수 있기는 한 건가요?
전에 교수님이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다행히 감염으로는 안 갔다고 해서요. 다행히 안 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 듣고 나서 갑자기 주사기나 채혈, 이런 것이 두렵기도 하고 제대로 실습은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건가요.

A Universal precaution을 염두에 두고 실습하시면 안전합니다.

☞ 걱정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감염인에게 사용하던 기구에 한번 찔렸을 때 감염될 확률은 0.3% 정도로 이는 B형 간염에 똑같은 경로로 노출되었을 때의 경우인 25-30%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입니다. 혹시라도 노출되었을 때는 상처를 흐르는 물에서 비누로 씻고, 가능하면 노출 후 1~2시간 이내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로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에이즈도 Universal precaution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호기심에서 여러 가지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 제가 중3 때 자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항문에다가 리코더 사면 그 검은 막대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넣어보고, 손톱깎이 세트에 보면 이상한 집게나 그런 것도 넣어보고요. 그리고 쇠로 된 면봉을 성기 구멍에다가 살짝 넣어 보기도 하고(물론 포경수술하기 전이요). 그 후로 겨울방학 때 포경수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런 짓 했는지 후회가 되네요. 너무 자주 한 건 아니고요. 2~3번 그런 짓하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안했는데요. 에이즈나 다른 질병에 걸린 건 아니겠죠? 제가 건강에 관심이 엄청 많아서요. 지금부터라도 건전하게 살고 싶는데...

A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에이즈의 감염은 감염인의 체액 속에 있는 HIV가 비감염인의 몸속으로 들어갈 때 가능합니다. HIV를 충분히 포함하는 체액이라 함은 혈액, 정액, 질분비액, 모유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담 의뢰한 내용으로 보서는 에이즈를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전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다행입니다. 자위를 하면서 면봉이나 다른 물건을 성기나 항문에 넣어보는 것은 상처를 내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위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자위는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진 대사의 하나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성 충동을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운동이나 등산, 악기연주 등 취미에 정신을 집중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성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좋겠고, 성욕을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호주에서 문신시술을 했는데 걱정됩니다.

☉☉ 몇 주 전 호주에서 문신을 시술했었는데 인터넷 검색 결과 문신으로 에이즈나 매독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쁘다는 생각만 했었지 문신에 대한 인식이나 사전지식이 너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성인지 증상인지 모르겠지만 구토증세가 꽤 심한 편이고, 복통도 요즘 들어 심해졌습니다. 여지껏 혼전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 문신으로 인한 에이즈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손님들이 꽤 많았고 기계로 시술하였는데 소독여부는 확인을 하지 않아 잘 모르겠고 일회용 장갑은 착용하였습니다. 시술 후 이번 주가 4주째인데 지금 검사를 받아도 감염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2주 후 다시 호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12주가 되는 시기에 어떻게 검사를 개인적으로 따로 할 수는 있는 건지요,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에이즈를 검색하고 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모님 뵈면 면목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지금 검사를 받는 게 나은 건지 알려주세요.

A

현지에서 검사를 받아 보십시오.

☉☉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신 시술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문신을 하는 곳이라면 소독이나 멸균, 일회용 바늘 등의 예방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호주에 돌아가셔서 그 시술소에 가서 자세히 여쭙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2주 후에 에이즈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으시는 검사는 항체검사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방어를 위해 만들어지는 항체의 유무를 보는 검사입니다. 대개 3주 정도부터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며 대부분 6주 정도면 생기는데 간혹 늦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 12주 후의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보건소나 우리 협회에서 받으시면 무료,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협회는 서울(화, 금요일), 창원(금요일), 대구(금요일)에서 받으실 수 있고 결과는 20분 이내에 나옵니다. 편안한 검사와 익명성을 보장해드리도록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미리 1588-5448로 예약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접수하지 마시고 바로 검사실로 가시면 검사 받으실 수 있고 결과는 일주일 내외로 나오며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주 정도면 혈액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2주 후에 재차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호주에도 ALBION STREET CENTRE 등 무료, 익명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에 돌아가셔서 12주 후에 검사를 받으셔도 됩니다.

Q

생리 중 섹스는 감염될 위험이 높나요?

☉☉ 항문섹스 등이 질성교에 비해 에이즈 유발 확률이 높은 것은 항문섹스 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이 생리 시에 하면 당연히 혈액이 나오기 때문에 에이즈 감염 확률이 높을까요? 예전에 여성이 생리 시 섹스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당시 콘돔을 낀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요, 생리 섹스는 위험한가요? 그 여성에 대해서도 그리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생리 중 섹스도 콘돔을 끼면 안전한가요?

A

감염확률은 높아지지만 콘돔을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 많이 불안하시지요. 여성이 생리중일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은 혈액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방 여성이 감염인이란 감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선생님님께서 콘돔을 사용하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런 일입니다. 낯선 사람과 성관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콘돔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위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